

전 생애 안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익산성모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오○○(F/64)
- 진단명: 폐암
- 입원 경과: 2018년 5월 W대병원에서 폐암 진단받고, 수차례 항암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월 최종적으로 악화 판정받음. 전신 상태가 불량하고, 환자도 추가적인 항암치료는 거부하여 이후 호흡기내과 외래 추시하면서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0년 6월 호흡곤란, 가슴

통증을 주호소로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함.

<입원 시 상태>

- 활동상태: ECOG 3점
- 의식 상태: 명료
- 통증: NRS 3점
- 식이: 일반식이, 섭취량 저하
- 신체 사정: 얼굴, 목, 양팔의 부종
- 활력 징후: 정상 범위

진료 부분

<병력>

- 2018.05.14 W대병원에서 폐암 진단. 이후 수차례 항암치료 시행함.
- 2020.01.16 chest CT상 폐암 악화 소견 보여 항암치료 중단함. 이후 수차례 악성 흉수 제거 및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종괴 제거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함.
- 2020.06.16 호흡곤란, 가슴 통증을 주 호소로 본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함.

<주 증상에 따른 진료 과정>

1. 호흡 곤란

(평가)

- 말기 폐암, 우측 악성 흉수 소견
- 호흡곤란 호소함.
- 간헐적으로 기침 발작 있음.

- 입원 당시 O2: 3L inhalation (via nasal prong) 및 오논캡셀, 심비코트라피헬러 160/4.5mcg 투약 중

(치료 계획)

- O2 inhalation 및 기존 약물 투약 유지함.
- W대병원 영상의학과에 흉수배액 위한 PCD 삽입 의뢰함.
- 기침 발작 시 모르핀 5mg IV

(반응)

- PCD 통한 흉수배액 시행 후 호흡곤란 완화됨.
- IV 모르핀 투약 후 기침 발작 완화됨.

2. 가슴 통증

(평가)

- NRS 3점 육신거리는 통증 호소함.
- 가끔 돌발성 통증 호소함.

- 입원 당시 마트리펜패취 50mcg/h 투약 중
(치료 계획)
- 평균 통증 점수 및 돌발성 통증의 빈도, 강도를 고려하여 진통제 용량 조절하기로 함.
- 돌발성 통증 시 모르핀 5mg IV
(반응)
- 통증 호소에 따라 진통제 용량 증량하였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통증 잘 조절됨.
- 돌발성 통증 호소 감소함.

3. 얼굴, 목, 양팔의 부종

(평가)

- 흉부 x-ray 상 Rt. superior mediastinum 확장 소견
- SVC syndrome 소견 관찰됨.

(치료 계획)

- 환자가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원하지 않음.
- 스테로이드 투약하기로 함.
- 머리를 높게 위치하고, O2 inhalation 유지함.

(반응)

- 스테로이드 투약 후 증상 약간 완화됨.

간호 부분

1. 암성 통증

(사정)

-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너무 차요.”
- “기침과 가래로 통증과 식은땀이 계속 흘러 견딜 수가 없어요.”
- 상체 부종 심하며 폐암으로 인한 발작성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가지며 불안해하는 모습 보임.

(계획 및 중재)

- 환자와 보호자에게 격려와 안정할 수 있도록 통증에 대한 중재 방법과 폐암으로 인한 발작성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함.
- 산소흡입과 진통제 사용, 그 외 환자와 보호자·호스피스 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표현하도록 함.
- O₂ inhalation 3L/min start
- 통증의 양상에 따라 5D/S 500ml 수액에 morphine 10mg 2@ IV mix 하였고, 모르핀 10mg 4@→ 6@ 증량함.
- self 심비코트라피헬러 160/4.5 흡입제 (하루 Bid) 흡입하도록 함.

- 돌발성 통증 호소 시 morphine 5mg IV 처방함(prn).
- 마트리펜 패취 50mcg/h 부착함.(3일에 교환함.)
- 그 외 영양제, 라식스 20mg(qd) 암브록솔 1@ (Bid) IV side injection 함.

(평가)

- 산소흡입과 진통제 투여 후 통증과 호흡곤란이 조절되고 편안해함.
(통증 평가 NRS 8점 → 재평가 NRS 3점)
- 환자와 가족이 비약물적 중재를 통해 통증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찾음.

2. 임종 준비

(사정)

- “저는 하느님만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살아온 삶은 힘들었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해요.”라고 말함.
- 목회자와 봉사자들의 돌봄을 받으며 기도 해주셔서 신부님, 수녀님께 행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함.

(계획 및 중재)

- 의식감소로 곁에 있어 주면서 손을 만져주

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임종 맞이할 수 있도록 불안감 해소 시켜 줌.

- 생의 마지막 단계인 육신을 영원한 세계로 떠나보내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팀과 가족이 하느님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함께 함.
- 심신의 허약과 마지막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임종 상태가 가까워짐을 가족에게 설명함.(pps 10점)
- 의식상태: coma, 혈압 하강, 호흡감소, 말초

청색증, 식은땀, 소변량 감소, 동공 확대되고 cheyne-stokes 호흡 후 임종함.

(평가)

- 보호자께: 이별 돕기, 불안감, 아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함.
- 임종 후 환자와 고별 인사하도록 함.
- 시신 닦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원목과 가족, 봉사자와 함께 고별 기도함.

사회복지 부분

<개인력>

- 남매 1남 1녀 중 동생
- 결혼 후 배우자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배우자는 10년 전 간 경화로 사별함. 자녀 없음.
- 시부모는 금치산자로 정상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10년 전부터 연락 안 함.
- 오빠가 병원비 일부 보조하며 배우자(환자의 올케)와 함께 동생 돌봄하고 있음.
- 배우자 사별 후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였고, 경제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립 속에서 생활하였다고 함.
- 개신교 신자이며 목사님과 친구인 권사님에게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있음.
-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위안받고자 함.

<가족력>

- 부친 사별함
- 모친 사별 후 재혼하여 관계 미약함.
- 오빠(66세) 서울 거주. 직장 퇴직 후 택시기사로 근무. 기혼. 2남 1녀 있음.
- 올케(62세) 서울 거주, 무직, 환자 돌봄 위해 병원 인근에 있는 친정집에 임시 거주하며 주간호자 역할하고 있음.
- 오빠와 올케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향유

하지 못하고 항상 불우하고 소외되었던 삶을 살아 왔던 환자가 병식을 수용하며 긍정적인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음.

<경제적 상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급여 1종
- 영구 임대아파트 단독 거주
- 환자 혼자서 생활하며 약간의 돈을 저축했으나 병원비로 대부분 지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금과 오빠의 도움으로 병원비 납부 할 수 있다고 함.

<사정>

- 환자는 입원 시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병식에 대한 거부반응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실 생활 적응에 힘들어 하였음. 환자의 연령이 64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호흡곤란과 통증은 있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어색해하였음. 성장 과정과 결혼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 후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악성

흉수를 제거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과 분노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기도와 가족의 돌봄으로 서서히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던 환자는 통증이 심해지고 신체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병식을 수용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였음.

- 주 보호자인 환자의 오빠는 개인 업무로 인하여 병실에서 상주할 수 없었고, 오빠의 부인인 올케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집으로 가셨음. 오빠와 올케의 자택은 서울이었지만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병원 인근에 있는 환자의 집과 올케의 친정집에 거주하였음. 올케의 돌봄을 부담스러워하던 환자와의 초기 관계는 부자연스러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변화하였음. 보호자는 환자가 자기 존중감과 축복의 감정을 가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음악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손을 맞잡으며 함께 울동과 노래를 하였음.

<개입 및 결과>

- 호스피스 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돌봄으로 환자의 불안과 우울함이 수용으로 전환되었음.
- 오빠와 올케의 헌신적인 간호와 병실을 방문하시는 성직자의 기도는 환자의 가슴속에 내재되어있던 불행이라는 단어를 소멸시켰음.
- 보호자는 환자 돌봄 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불안을 호소하였으나, 상담과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반영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고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였음.
- 개신교 신앙인인 환자는 음악 치유 프로그램에서 사랑의 성가를 들으며 보호자와 손을 잡고 울동을 하였고,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감정을 정화하였음.
- 환자는 임종 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던 시간이라고 하였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하였음.

원목 부분

<종교적 배경>

환자는 결혼 전부터 기독교에 입문하여 50년간 신앙생활을 하였고 20세에 남편을 만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이 둘을 가졌으나 유산으로 실패하고 그 뒤 온갖 고생 끝에 아이를 가져보려 하였으나 몸은 망가지고 아이를 낳 수 없는 상태가 됨. 평생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가진 한을 품고 살았음. 2009년 남편이 간 경화로 사별함. 오빠와 올케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병실에 머물면서 교대로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있음.

<신앙에 대한 환자의 고백>

처음 만날 때부터 환자는 자신의 병명과 예후를 잘 알고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 오게 된 것도 자신이 결정하였다 하며 자식도 없고, 남편도 떠나고 한 분 밖에 없는 오빠와 올케가 자신을 붙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보니 홀가분하고 지금이야말로 마음고생 끝나고 하늘나라 갈 일만 생각하고 있는 가장 자유로운 최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 언제라도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함.

<영적 돌봄>

환자는 원목자와의 만남 안에서 자신이 걸어 온 삶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졌다고 하였다. 익산 시내 B 교회에 다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목사님과 신도들의 방문이 어렵게 되자 원목 수녀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하느님이 자신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꼈고, 이제는 숨 쉬는 것이 어려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라고 하느님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였다. 늘 곁에는 올케가 시중을 들었고 개인택시운전을 하는 오빠가 틈을 내어 교대로 옆에서 지켰다. 원목 수녀님이 손을 잡고 기도와 성가를 불러주면 숨쉬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넘기는 선율이라고 표현하며 심신이 편안해 진다고하여 단순하고 영적영감을 주는 떼제 성가를 자주 불러 주었음.

봉사자 부분

병실의 침상에 앉아 계신 000님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고 다소 불편하였다. 우선 말씀이 없으셨고 어두워 보이셨으며, 불안정한 모습으로 주위를 살피시는 행동으로 인하여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일반적인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인지력이 명확하셨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였고, 비교적 젊은 분이었기에 상담계획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내 나이와 가족관계를 물어보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간 경화로 사망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셨다. 오빠와 올케가 병원비를 보조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하셨다. 고인이 된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생활력이 부족하였으며 시부모님도 장애가 있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였고 아이가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다.

내가 암 투병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용기를 북돋아 드렸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어려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뇌종양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은 말로서는 다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였더니, 000님은 자신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학대를 많이 하였다며 과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어서 기분이 편안해졌다고 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신다고 하였고,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하였는데 상태가 악화되며 호흡곤란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사람을 거부하던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눈으로 먼저 인사를 해주시고,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으며 교회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였는데, 특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의 찬양을 좋아하셨다.

손으로 울동하면서 마음 정화를 하시며 눈물을 조금씩 흘리시는 모습에서 참으로 감성적인 본인에 생활이 힘들어서 각박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부터는 기도와 찬양과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고 평안해지시기를 기원하였고 악화되는 병식과 다르게 편안해지시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임종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친구를 잃은 것 마냥 가슴이 아려왔으며 슬픈 감정이 지속되었고 평안을 기도하였다.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